

계율서 출간 잇달아

'율장' 등 10여종...실천규범 대중확산 기여

다시 계율이 얘기되고 있다. 16일 영축불교문화연구원에서 '한국불교의 계율사상 연구'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지난 92년 선유도량에 제4회 수련결사 주제를 '정규'로 정하고 발제와 토론을 벌이면서 '계율'에 대한 관심이 승단 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의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드물었던 계율관계 도서 출간도 이때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율장> <계율강요> <계율학> <사문율> <초기불교교단과 계율> <율장연구> <율장전서> <교계율의> 등 목록을 형성할만큼 불서출판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율장>(사토 미츠오 지음·법해 옮김, 역경원)은 율

장의 성질과 내용,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밝히고 있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서 연구자들에게는 보기가 쉽지 않다.

법흥스님(송광사 목우산방)이 편역한 <계율강요>는 일타스님의 '비니셔요'(毘尼序要) "계율참고자료" 율종의 종지와 수행방법 '지지계와 작지계', '율장대요'(사토 미츠오·법해 옮김) '백장창규의 역사적 의의' '근세 중국불교의 계의 변용'을 우리 글로 옮겨 실었다.

<계율학>(석성우 편, 도서출판 토방)은 계율관계 박사학위 논문을 묶은 것으로, '남북전 육부율장 비교연구'(지판) '신라불교 계율사상 연구'(인환) '의적(義寂)의 보살계보 연구'(목정배)

'신라보살계 사상연구'(최원식) '불교율장의 성립과 대승율의 발달 연구'(박호남) '열반경의 계율사상 연구'(신성현)로 구성되어 있다. 계율은 출가수행자의 일상생활 작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가자에게는 유통을 금하는 전통이 있었다. 대만의 경우는 아직도 계율연구는 출가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구 비구니와는 보지말라'는 문구가 낯설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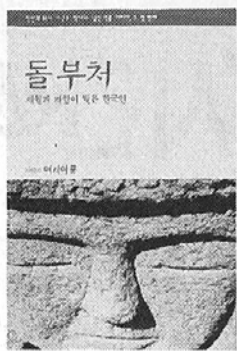
이런 전통 때문인지 위의 책들은 법공양관 또는 한정판으로 발행돼 유통과 연구자 등에만 유통되었다. 그러나 계율은 승단만의 규범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회의 윤리적 실천규범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계율에 대한 관심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책으로는 <초기불교교단과 계율>(김호성 옮김, 민족사)이 꼽힌다. 일본의 불교학자 사토 미츠오의 <불교교단의 성립과 전개-원시불교 교단과 계율>을 완역한 것으로 승단입문과 교육, 소송과 재판, 승가갈마 등 교단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생활규범과 비구계와 비구니계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정성운 기자

"불교유적의 보고요, 민족에 힘이 뿌리내린 곳/돌 하나 풀 한 포기도 선조의 살결이며/물소리 새 소리마저 조상의 음성 이요, 숨소리니은 정성 다하여 다듬고 가꾸/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남겨줄 자연박물관이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은 산" 경주 남산을 신라말기 불우했던 지식인 최치원 선생은 이렇게 예찬했다. 경주 남산은 동서 4Km, 남북 8Km, 해발 468m 밖에 되지 않는 아트마한 산이다. 5백여기



을 엿볼 수 있다. 문화재 전문가와는 다른 독특한 경치를 얻어보고 있다. 경주 남산의 돌부처 순례를 통한 한국인의 정서적 원형질 탐색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들을 남산으로 이끈다. 무슨 종교적 의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들관과 야산에서 있는 부처님이 전혀 엄숙하지 않듯 우리도 산을 오르듯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면 된다.

"남산을 올라보자. 우리들의 가슴에 옥시라도 영겨있을 바

정신과 의사의 문화재 사랑 남산순례기 '돌부처' 나왔다

이근후박사, 석불통해 '한국인 얼굴 찾기' 시도

도서출판 여시아문 첫 출판물

에 이르는 우리나라 석불의 20% 가까운 90여기가 이곳에 산재해 있다. 가히 부처님의 땅이다.

정신과 전문의 이근후박사(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곳에 있는 돌부처에 대한 사랑을 1백여장의 사진과 36편의 글에 담아 <돌부처>라는 이름의 책으로 선보였다. 이 책은 현대불교신문 부설 도서출판 여시아문의 첫 출판물이기도 해 관심을 끈다.

이 박사는 이 책 속에 지난 10여년 동안 석불을 찾아 전국을 헤맨 시간을 고스란히 풀어놓았다. 한 지역에 가장 많은 석불이 있는 경주 남산 곳곳을 법등을 밝히듯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

석불의 소개에만 머물지 않

는다. 석불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과 희망을 담았다. 돌부처가 말없이 들려주는 얘기를 법구경을 비롯한 경전과 여타의 인문학적 식견을 통해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주관적인 느낌을 사진과 함께 실은 에세이집으로 읽힌다.

"세월과 바람이 빛은 한국인"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한 정신과 의사이자 바라본 우리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

위 같은 게 있다면 부처님 같은 자비로운 미소로 풀어보는 체험을 해보자. 남산은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그런 선물을 안겨주고도 남을 그런 산이다."

이 책에 실린 사진은 저자 자신의 작품이다. '인도의 석굴' '한국의 석굴' 등 네차례나 사진전을 가진 바 있는 전문가다. 이번에 펴낸 <돌부처> 출판기념회도 '아, 구원의 미소'라는 제목의 경주 남산 석불사건전(12월 14일부터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으로 꾸밀 계획이다. <정>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타	효린
2	도가원(없는)내가 무엇을 깨달았나	서안	동지
3	사람의 변화이야기	권영환	전원문화사
4	불교의 이해와 실천	이종표	대원정사
5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관
6	소설 등산불	석용산	문화수첩
7	방한암산사	김호성	민족사
8	평화로운	탁낙한	장경각
9	화성의 바다	관용	밀알
10	지기를 바로봅시다	성철	장경각

구입문의: (02)737-0695

은 울산대 스페인어과 김창환 교수가 했다. 스페인어판 <님의 침묵>은 국내는 물론 스페인어로 국기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연천 '향토사료집' 나와 군내 유적·유물등 소개

연천군문화원(원장 현문수)은 최근 향토사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천군 <향토사료집>을 펴냈다.

727쪽 분량의 이 책자는 △문화유적 및 유물 △산천 및 지명 △연천군 옛지도 △6·25이전 관내 집성촌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문화원은 향토사료집 편찬을 위해 93년 7월부터 5천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백여 종류의 기초문헌자료를 토대로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91년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지표 조사에서 발견된 중요 문화유적 및 유물 115점 외에 장남면 고랑포리 청동부종 및 청동반지(飯子) 등 150점을 새롭게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명사추천



청화 '원통불법의 요체'

십이년전 겨울 밤하늘이 많이 왔던 것 같다. '참선'이 무엇인 줄도 모르면서 청화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참선 공부하기 위해 눈썹이 산골을 따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칠장사에 밤늦게 도착했다.

청화사님의 법문을 들면서 법문의 내용은 듣지 않고 얼굴만 한없이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천진스러운 동안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보는 깨끗한 얼굴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중에 듣고 보니 많은 고행과 수행을 겸비하신 큰스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몇년 전, 전남 곡성군 동리산 태안사에 있는 금강선원에서 제방의 수좌스님들의 청법으로 이루어진 '7일간의 특별법회에서의 법어 내용이다. 나도 출가승이었다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졌던 차에 법어집으로 엮여져 나와 읽을 기회를 갖게

"자기 공부하는 경계는 스승한테 경계 받기 위해서가 아닌 한 다름이에게 말하지 말라는 불조(佛祖)의 경책이 있다. 그래서 공부를 점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부질없이 얘기하면 망언이다. 따라서 구대여 망언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 불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선지식들의 가르침에 따르되 그때 그때 인연에 따른 표현과 말에 걸리지 말고 그 깊은 의미를 좇아서 일심정념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정해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화해통한 인간성 회복 길잡이 금타화상의 우주론 쉽게 정리

되었다. 참선수행에 있어서 실제로 닦고 증득하는 수증론이 배대를 이루고 있다. 불교를 원용무애하게 회통시킨 말씀이기에 <원통불법의 요체>라고 표제하였나 보다.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를 비롯한 수증의 여러가지 문제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를 비롯한 인도, 중국불교의 수행론의 변천, 참선, 열반, 삼매와 공덕, 계율론과 수능엄삼매도, 삼계와 해탈, 그리고 금타화상의 우주론과 질의 응답의 내용이 실려있다.

몇해전 미국을 다녀오셔서 "미국은 참으로 예니지가 충만한 곳이며 사람들이 밝고 여유가 있어 우리보다 훨씬 업적이 가벼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미국을 큰 용에 비유한다면 눈 없는 용과 같다 그 눈은 부처님 법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 하셨다.

공부하는 경계에 관해서는

현대에 꼭 필요한 것은 이른바 회통불교로서 불교의 경직된 분파적인 것을 지양하고 세계 종교의 비교종교학적 연구와 교섭과 화해를 통한 융합의 문제임이 지적되어 있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첨단 과학도 물질의 근원은 무엇이고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며 물질과 마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심각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갈수록 삭막한 불안과 좌절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나 노사간의 갈등이나 단체간의 괴리나 가정의 불화 등 우리 사회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 잠시 녹아버리듯이 홍로점설(紅爐點雪)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나온 책.....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오형근 지음)=무한하게 생사를 되풀이하는 영혼의 실태와 윤회하는 과정, 그리고

주석하며 동남불교신문사 주필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시사칼럼 모음집. 불교인의 시각으로 부정과 부패, 부실이 판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미래문화사, 6천5백원)



▲하늘의 빛을 열고(동하 지음)=동사 한계안에

▲지장보살 영험록(현법 편지)=모든 중생들이 보리를 증득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과 지장경의 '해설, 지장기도를 통한 영험담을 모았다. (대흥기획, 3천원)

'생명운동 자료집' 이달중 발간

불교환경교육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현대과학사상의 흐름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진행했던 '생명운동 아카데미' 강좌내용을 12월중 자료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집에는 △수학자의 문명관:0에서 공(空)으로(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현대과학사상:포퍼와 토마스 쿤의 과학사상(박은진·성균관대 강사) △양자역학의 철학적 논의와 세계관(최종태·환경과 자연철학연구소장) △스키계론적 패러다임의 반환경성(김국태·호서대 철학과교수) △21세기의 과학과 초과학(최동식·고

려대 화학과 교수) △DNA발견으로부터 인체유전자 프로젝트까지의 생명인식(서정선·서울대 의대교수) △현대과학에서의 생명인식(장희익·서울대 물리학과교수) 등 7개 강좌와 '과학사상과 환경운동의 이념' '생명운동의 환경사적 의의'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 내용이 실린다.

불교환경교육원은 또 '불교와 생명' '불자환경지침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만해스님 '님의 침묵' 스페인어 번역 출간

만해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울산대 출판부에서 출간됐다. 번역

불교가득, 법행가득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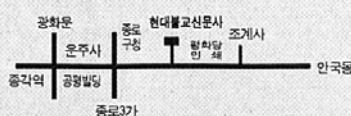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실었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